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1 pp. 7356-7366, 2015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1.7356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간호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구혜자[1], 이외선[2*]
[1]경성대학교 간호학과, [2]창신대학교 간호학과

The Correlation between Nurse's image, Bio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Hye-Ja Gu[1] and Oi-Sun Lee[2*]
[1]**Department of Nursing, Kyunsung University**
[2]**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G도의 간호학생 223명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4년 9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연구결과 간호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생명윤리의식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가(r=.279, p<.001),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68, p<.001). 또한, 생명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84, p<.001). 따라서 간호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s's image, bio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Subjects were 223 nursing student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aires from September 4 to 19, 2014.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using SPSS Win 20 program. Nurse's image was significantly correlation with bio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Therefore, to increase nurse's image, bio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test program for improving nurse's image, bio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Biomedical ethics, Nurse's image,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ism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문직은 다른 직업보다 체계화된 전문 지식, 전문직 성원을 충족하기 위한 공식적인 훈련, 직업적 독점에 의한 높은 지위 보장, 직업 윤리에 의한 도덕성 등이 갖추어져 있다[1]. 간호사가 전문직 종사자로서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복합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뚜렷한 소명감과 긍지 곧 전문직 정체성이 요구된다[2]. 간호사들이 긍정적이고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을 가지고 있을 때 의료현장의 다양한 전문인과 조화를 이루며 양질의 간호제공과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환자뿐만 아니라 간호사 스스로도 만족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간호사의 위치를 확

*Corresponding Author : Oi-Sun Lee(Changshin University)
Tel: +82-55-250-3174 email: leeosun@daun.net
Received July 24, 2015 Revised September 15, 2015
Accepted November 6, 2015 Published November 30, 2015

립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므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3].

현재 간호계의 주요 문제 중 신규간호사들의 이직문제를 들 수 있는데, 임상에서 현실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문직 사회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함을 고려해 볼 때, 간호교육을 통해 간호의 미래를 주도할 간호학생 때부터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이 요구된다[4]. 간호교육을 통해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잘 형성되어야만 간호사가 되어서도 간호전문직관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간호학생의 전문직관 형성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3].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전공만족,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이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예측변수로 영향력이 있었으며[3], Ham 등[5]은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영향력 높은 변수로 간호사이미지를 들었다. 여기서 간호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는 대중매체와 같은 외적요인과 간호사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인지하는가는 내적요인이 영향을 준다[1]. 간호학생들이 간호학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면 간호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간호학 교육 및 실습에 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임상이나 지역사회 등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사회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6]. 전문직에 대한 이미지는 그 전문직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간호사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간호전문직의 발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1].

또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는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전문직으로서의 권한, 책임감, 자율성,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반 직업 종사자들과 달리 고도의 직업윤리가 강조되어 왔으며, 좋은 간호사에게는 간호학적인 기술뿐 아니라 윤리적 사유능력 및 도덕적 품성까지도 요구된다[1]. 우리나라는 1955년 대한간호협회 윤리위원회가 발족되어 윤리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래 2013년에는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의 제4차 개정과 2014년 한국간호사 윤리선언의 제1차 개정을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책임과 신뢰를 계승하고, 의무를 다할 것을 사회적으로 천명하고 있다[1]. 그러므로, 전문직으로서의 간호교육은 간호업무의 근거가 되는 지식과 기술의 체계화를 강조하고, 지식과 기술을 구체적인 간호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며, 간호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도 독자적인 인격을 소유한 인간으로 육성하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1].

이상으로, 간호전문직관, 간호사이미지 및 생명윤리의식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최근에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다수 있으나(5, 7-9),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의 세 변수간의 관련성을 함께 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에 있는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서를 작성한 223명이었다.

표본 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G power program으로 효과크기를 .5, 유의수준 .05, 검증력 .9로 설정하였을 때 172명으로 계산되었다. 이에 탈락율 30%를 고려한 결과

172명/(1-0.3)=246명으로 나와, 총 250명에게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이 중 회수되지 못한 27부를 제외한 최종 223명을 대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조사지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종교, 간호학과 선택 동기, 간호사이미지 형성에 대한 영향 요소, 간호학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경험유무 등 총 7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3.2 간호사이미지 측정도구

간호사이미지 측정도구는 Yang[10]과 Kim과 Kim[11]의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에서 추출한 33개의 예비문항을 Kang 등[12]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를 포함한 의료인 및 대학생 5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하여, Eigen value 1.0이상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확인한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Kang 등[12]의 간호사이미지는 전문적이미지 6문항, 전통적 이미지 6문항, 사회적 이미지 5문항, 간호직 전망 3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는 5점 척도의 Likert scale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으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ang 등[1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3이다.

2.3.3 생명윤리의식 측정도구

생명윤리의식 측정도구는 Lee[13]가 고안한 윤리적 가치관 설문지를 기반으로 Lee[14]와 Choi[15]가 재구성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Kwon[16]이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고 재구성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Kwon[16]의 도구는 태아의 생명권 5문항, 인공임신중절 6문항, 인공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신생아의 생명권 5문항, 안락사 5문항, 장기이식 4문항, 뇌사 5문항, 인간생명공학 7문항의 총 49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과는 관련성이 적은 인간생명공학의 7문항을 제외하고 다른 도구와의 척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총 42문항의 Likert 5점 척도의 도구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의 범위는 42점에서 2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윤리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1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2이다.

2.3.4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는 Yeun 등[17]이 개발한 29문항을 Han 등[18]이 문항을 축소하여 구성타당도 검증한 총 1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Han 등[18]의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측정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의 범위는 18점에서 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잘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Han 등[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이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훈련된 연구보조원을 통해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서에 서명한 간호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자가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250부 중 27부가 회수되지 못하여 회수율은 89.2%였으며, 최종 22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9월 4일 ~ 2014년 9월 19일까지였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는 연구자가 지정한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보관 후 단독 관리 하였으며,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는 3년간 보관할 것이며, 3년 후에 소각 처리할 것이다.

2.5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은 평균평점범위, 평균평점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간

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표본 선정 시 임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모든 간호학과 학생에게 확대해석하는데 제한이 있다. 또한,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나 본 연구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3. 연구결과

3.1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학생의 성별은 여자가 197명(88.3%), 대상자의 학년은 3학년이 115명(51.6%)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 130명(58.3%)이었고,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87명(39%)로 가장 많았고, 취직용이 64명(28.7%), 가족 권유 41명(18.4%), 봉사 직업 14명(6.3%), 성적고려 9명(4%), 기타 8명(3.6%) 순이었다.

간호사이미지 형성에 대한 영향요소로는 입원 시가 77명(34.5%)로 가장 많았고, 임상 실습 59명(26.5%), 대중서적 44명(19.7%) 등 순이었다.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88명(39.5%)로 가장 많았고, 보통 75명(33.6%), 불만족 29명(13.0%), 매우 만족 23명(10.3%), 매우 불만족 8명(3.6%) 순이었다. 임상실습 경험유무는 유 127명(57%), 무 96명(43%) 이었다 [Table 1].

3.2 간호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및 간호전문직관

간호학생의 간호사이미지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3.83점이었다. 간호학생의 간호사이미지는 하위영역 중 전문적 이미지 4.1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통적 이미지 3.70점, 사회적 이미지 3.70점, 전망적 이미지 3.68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의 생명윤리의식은 평균평점이 5점 만점에 3.56점이었다. 간호학생의 생명윤리의식은 하위영역 중 태아의 생명권 3.9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생아 생명권 3.90점, 장기이식 3.61점, 인공수정 3.54점, 인공임신중절 3.50점, 태아진단 3.43점, 안락사 3.41점, 뇌사 3.10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23)

Variable	Categories	N	%
Gender	Male	26	11.7
	Female	197	88.3
Grade	1st	103	46.2
	3rd	115	51.6
	4th	5	2.2
Religion	Yes	93	41.7
	No	130	58.3
Motivation for admission	Fitness and interesting	87	39.0
	Grades in high school	9	4.0
	Recommendation of family	41	18.4
	High employment	64	28.7
	Servable job	14	6.3
	Other	8	3.6
Factor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nurses' image	Popular books	44	19.7
	Admission	77	34.5
	Family and friends	35	15.7
	Clinical practice	59	26.5
	Professor indirect experience	8	3.6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Very satisfied	23	10.3
	Satisfied	88	39.5
	Neutral	75	33.6
	Dissatisfied	29	13.0
	Very dissatisfied	8	3.6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127	57.0
	No	96	43.0

Table 2. Degree of Nurses's image, Biomedical ethics Professionalism (N=223)

Variables	Categories	Range	Mean±SD
Nurses's image	Professional image	2.17~5.00	4.16±.58
	Traditional image	2.00~5.00	3.70±.72
	Vision of nursing career	1.67~5.00	3.68±.74
	Social image	1.80~5.00	3.70±.70
	Total	2.15~5.00	3.83±.56
Biomedical ethics	Right to life of fetus	1.40~5.00	3.97±.63
	Artificial abortion	2.00~5.00	3.50±.46
	Artificial insemination	2.43~4.86	3.54±.49
	Prenatal diagnosis of fetus	2.40~5.00	3.43±.41
	Right to life of newborn	2.40~5.00	3.90±.61
	Euthanasia	2.20~4.60	3.41±.50
	Organ transplantation	2.25~5.00	3.61±.60
	Brain death	2.00~4.40	3.10±.37
	Total	2.74~4.31	3.56±.32
Professionalism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2.17~5.00	3.99±.57
	Social awareness	1.60~5.00	3.45±.70
	Professionalism of nursing	2.00~5.00	3.72±.70
	The role of nursing service	1.50~5.00	3.94±.69
	Originality of nursing	1.00~5.00	3.59±1.16
	Total	2.83~5.00	3.76±.48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평균평점이 5점 만점에 3.76점이었다.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하위 영역 중 전문직 자아개념 3.99점, 간호계의 역할 3.94점, 간호의 전문성 3.72점, 간호의 독자성 3.59점, 사회적 인식 3.45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및 간호전문직관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이미지는 학년(F=27.85, p<.001), 간호학과 선택동기(F=4.31, p=.001), 간호사이미지형성에 대한 영향 요소(F=3.09, p=.017), 간호학 전공 만족도(F=5.34, p<.001), 임상실습경험 유무(t=-6.1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 분석한 결과 학년에 따른 간호사이미지는 1학년이 3, 4학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왔으며, 간호학과 선택동기에 따른 간호사이미지는 적성과 흥미가 있거나 성적 고려, 취직의 용이,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 기타보다 높게 나왔다.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 따른 간호사이미지는 매우 만족, 만족의 경우가 매우 불만족에 비해 높게 나왔다.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윤리의식은 학년(F=3.71, p=.026), 간호학과 선택동기(F=2.78, p=.018), 간호학 전공 만족도(F=2.79, p=.027), 임상실습 경험 유무(t=-2.01, p=.04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 분석한 결과 간호학과 선택동기에 따른 생명윤리의식은 기타로 선택한 경우 보다 봉사를 할 수 있는 직업이 동기인 경우가 높게 나왔다.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학년(F=16.97, p<.001), 간호학과 선택동기(F=3.48, p=.005), 간호사이미지형성에 대한 영향 요소(F=5.59, p<.001), 간호학 전공 만족도(F=7.98, p<.001), 임상실습경험유무(t=-4.96, p=0.4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 분석한 결과 간호학과 선택동기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기타로 선택한 경우 보다 봉사를 할 수 있는 직업이 동기인 경우가 높게 나왔으며,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만족의 경우가 매우 불만족에 비해 높게 나왔다[Table 3].

3.4 간호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간호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생명윤리의식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가(r=.279, p<.001),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68, p<.001). 또한, 생명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84, p<.001)[Table 4].

Table 3. Nurses's image, Bio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23)

Variables	Categories	Nurses's image				Biomedical ethics				Professionalism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4.01±.67	1.42	.166		3.50±.34	-.97	.336		3.83±.54	.82	.416	
	Female	3.81±.54				3.56±.31				3.75±.47			
Grade	1st[a]	4.11±.50	27.85	<.001	b, c<a	3.62±.28	3.71	.026	-	3.95±.44	16.97	<.001	-
	3rd[b]	3.61±.51				3.50±.33				3.60±.45			
	4th[c]	3.49±.58				3.57±.41				3.54±.44			
Religion	Yes	3.82±.59	-.36	.721		3.56±.32	.09	.930		3.73±.53	-.71	.480	
	No	3.85±.54				3.55±.31				3.78±.43			
Motivation for admission	Fitness and interesting[a]	3.96±.55	4.31	.001	f<a,b,d,e	3.58±.31	2.78	.018	f<e	3.87±.50	3.48	.005	f<e
	Grades in high school[b]	3.92±.54				3.43±.24				3.50±.28			
	Recommendation of family[c]	3.71±.44				3.59±.30				3.66±.35			
	High employment[d]	3.78±.61				3.52±.32				3.71±.47			
	Servable job[e]	3.98±.51				3.72±.26				3.97±.52			
	Other[f]	3.15±.40				3.28±.41				3.43±.49			
Factor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nurses' image	Popular books	4.01±.60	3.09	.017	-	3.60±.33	1.45	.218		3.89±.54	5.59	<.001	-
	Admission	3.82±.57				3.49±.32				3.72±.44			
	Family and friends	3.92±.41				3.63±.31				3.97±.41			
	Clinical practice	3.65±.56				3.56±.29				3.58±.42			
	Professor indirect experience	3.99±.68				3.60±.42				3.94±.55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Very satisfied[a]	3.93±.59	5.34	<.001	e<a,b	3.47±.35	2.79	.027	-	3.78±.54	7.98	<.001	e<b
	Satisfied[b]	4.00±.49				3.63±.28				3.96±.41			
	Neutral[c]	3.73±.54				3.49±.34				3.61±.41			
	Dissatisfied[d]	3.68±.57				3.57±.31				3.66±.51			
	Very dissatisfied[e]	3.33±.81				3.47±.28				3.42±.57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3.65±.54	-6.15	<.001		3.52±.34	-2.01	.046		3.63±.46	-4.96	<.001	
	No	4.08±.49				3.60±.28				3.93±.44			

Table 4. Correlations of Nurses's image, Bio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N=223)

Variables	Nurses's image	Biomedical ethics	Professionalism
	r(*p*)	r(*p*)	r(*p*)
Nurses's image	1		
Biomedical ethics	.279(<.001)	1	
Professionalism	.568(<.001)	.384(<.001)	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사이미지는 평균평점이 5점 만점에 3.83점으로,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Cho와 Kim[7]의 연구에서의 3.65점, Joo와 Shin[8]의 연구에서의 남학생 3.80점, 여학생 3.75점과는 유사한 결과이며,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Kang 등[12]의 연구에서의 3.19점보다 높았다. 간호학생의 간호사이미지의 하위영역을 보면,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이미지 영역이 4.1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통적이미지 영역 3.70점, 사회적이미지 영역 3.70점, 전망적이미지 3.68점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Kang 등[12]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전문적이미지 3.46점으로 가장 높고, 전통적이미지 3.28점, 사회적이미지 2.93점, 전망적이미지 2.91점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순서와 동일하나, 점수는 본 연구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로서의 미래를 꿈꾸면서 직접적인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간호학생이, 일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보다 더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관점으로는 일반인들의 간호사이미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간호사이미지의 하위영역인 전문적이미지의 점수가 다른 영역보다 높은 것은 고무적이나, 다른 대상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받는 전통적, 사회적, 전망적이미지는 노력해야할 영역으로 보인다. 즉, 전문가이미지를 키우기 위한 간호학생들의 개별적 노력 뿐만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만들어지는 전통적, 사회적, 전망적 이미지를 함께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이미지는 학년에 따라 1학년이 3, 4학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왔는데, 이는 Cho와 Kim[7]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간호학생이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학생보다 간호사이미지가 유의하게 더 긍정적인 결과와, 간호학과 선택동기도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고 적성과 흥미에 맞으며 성적에 맞추어 입학하였으나, 간호사이미지 형성요소로 임상실습이 가장 낮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적인 임상환경에 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채 간호학과에 입학한 1학년 때보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의 학생들에게서 간호사이미지가 더 낮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임상과 간호사들의 기대가 낮아지고, 낙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체험하게 되는 간호실무뿐만 아니라 임상에서 간호사 스스로가 간호 및 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며[7],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간호사의 긍정적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긍정적 이미지가 정립된 선배나 다양한 분야의 임상 전문간호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개최하거나, 간호사 스스로 긍정적 이미지를 정립하는 것을 돕도록 학교에서 추수지도프로그램을 마련할 수도 있다. 또한, 임상실습기관과는 지속적인 대화로 임상실습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 따른 간호사이미지는 매우 만족, 만족의 경우가 매우 불만족에 비해 높게 나왔는데, 이는 Cho와 Kim[7]의 연구와, Jeong과 Yoo[19]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선행연구에서 간호학 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낮을 경우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고[20],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으면 간호사이미지가 부정적일 우려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간호학생들이 간호사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가지게 하기 위해서 간호학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학생의 생명윤리의식은 평균평점이 5점 만점에 3.56점이었으며, 본 연구와 달리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4점 척도로 조사된 Cho[21]의 연구에서는 3.04점과 Lim과 Park[22]의 연구에서는 3.03점, 그리고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4점 척도로 조사된 Moon 등[23]의 연구에서는 평균평점 3.01점이었다. 간호학생의 생명윤리의식의 하위영역을 보면, 본 연구에서는 태아의 생명권 3.9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안락사 3.41점, 뇌사 3.10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Cho[21]의 연구에서는 신생아생명권 3.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안락사 2.87점, 인공임신중절과 뇌사 2.82점으로 낮은 점수 순서를 보였고, Moon 등[23]의 연구에서는 신생아생명권 3.34점으로 가장 높았고, 뇌사 2.72점, 안락사 2.61점으로 낮은 점수 순서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신생아생명권 영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Cho[21]의 연구와 Moon 등[2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여, 간호학생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생명의료윤리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뇌사 영역은 Cho[21]의 연구와 일치하나 Moon 등[23]의 연구에서 안락사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Moon 등[23]의 연구에서도 뇌사영역의 경우, 낮은 점수 순위를 보이고 있고, 안락사 또한 낮은 점수 순위 영역으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뇌사와 안락사에 관한 이해를 돕고, 실제 호스피스병동의 임상실습으로 이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추가하며, 각 전공교과목별로도 생명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생명윤리의식은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간호학생이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학생보다 더 생명윤리의식이 높았는데, 이는 Kim과 Lee[24]의 연구와 유사하나, Lim과Park[22]의 연구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학년의 경우, 본 연구에서 간호학과 1학년의 생명윤리의식 점수가 가장 높았고(3.62점), 3학년 때는 가장 낮아졌으나(3.50점), 4학년 때는 다소 점수가 올랐다(3.57점). 이를 볼 때, 1학년 때는 교육과정상 대부분 교양위주의 교육에서 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년이 진급되면서 전공위주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되면서 생명윤리의식 마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학년이 상승될 때마다, 적어도 3학년 임상실습 전에는 생명윤리교육이 또다시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4학년 때 생명윤리의식이 다소 회복되고 있는데, 임상실습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경험되는 많은 윤리적 상황으로 인하여 상승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1학년 때보다는 낮은 점수이며, 4학년이 1학년에 비해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문제로 더 많이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4]. 그러므로, 임상실습기간 동안의 생명의료윤리 문제에 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학생의 생명윤리의식은 간호학과를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어서 선택하였을 때 유의하게 높았는데, 단순히 적성, 성적에 맞추어 직업으로서 선택했을 때보다 간호의 메타파라다임인 인간에 대해 봉사할 수 있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한 경우 생명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비춰볼 때, 종교의 유무가 간호학생의 생명윤리의식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데, Lim과 Park[22]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있는 학생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t=.09, p=.930), 추후 연구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생명윤리의식은 간호학 전공 만족도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간호학에 만족하는 경우가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생명윤리의식이 높았는데, 이는 Lim과 Park[22]의 유의한 차이가 없던 연구 결과(F=.146, p=.864)와는 달랐다. 학과 전공에 관해 만족하는 학생들은 긍정적인 사고로 생명윤리의식 또한 높음을 알 수 있는데, 학교 교육과정에서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래에 임상현장간호사로서 간호를 수행할 때 윤리적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25].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평균평점이 5점 만점에 3.76점이었고,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와 Kim[7]의 연구에서는 3.59점, Joo와 Shin[8]의 연구에서는 남학생 3.61점, 여학생 3.6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점수를 보이고 있다.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을 보면,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 자아개념 3.99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Cho와 Kim[7]의 연구에서는 간호의 전문성 3.91점으로 가장 높게 나온 결과와 다른 결과이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의 독자성 3.59점, 사회적 인식 3.45점이 낮은 점수 순이었고, Cho와 Kim[7]의 연구에서도 간호의 독자성 3.56점, 사회적 인식 3.27점 순으로 낮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와 동일한 순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간호의 독자성과 사회적인 식이 여전히 낮은 점수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간호사들의 자율적인 실무가 부족한 것은 다른 건강전문가들과 동등하지 못한 관계를 이끌게 될 것이다[26]. 즉, 간호사 스스로 다른 건강전문가들과 같이 자율적이고 독자적 역할을 수행했을 때,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것이다. 예를 들면, 과학적 지식체에 근간한 근거기반간호를 수행하고, 비판적사고를 통한 간호과정으로 간호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인격적 완성을 가질 때 독자성, 사회적 인식에서의 낮은 간호전문직관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학년, 임상실습경험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Cho와 Kim[7]의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학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1학년이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왔는데, 임상실습 전 형성되었던 간호전문직관이 실제로 임상실습을 하면서 부정적인 성향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므로[7], 간호전문직관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의 부정적 측

면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만족의 경우가 매우 불만족에 비해 높게 나왔고, Hyun과 Jeong[27]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학습만족도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282, p<.001)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정립을 위한 간호학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간호학과를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어서 선택하였을 때 유의하게 높았는데, 단순히 적성, 성적에 맞추어 직업으로서 선택했을 때보다 인간에 대해 봉사할 수 있는 정신적 가치를 우선시한 경우 간호전문직관도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이미지형성이 가족친지(3.97점), 교수간접경험(3.94점)을 통하였을 때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임상실습(3.58점)을 통하였을 때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현장의 다양한 현실을 직면한다. 임상실습과 관련되어 낮은 간호전문직관을 보이고 있으므로, 임상현장과 학교에서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듯, 고학년의 간호학생들에게서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이 낮은 것은, 이들이 임상실습을 통해 실습병동의 환경을 직접 접하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간호사의 모습과 현실사이에서 낙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에 따라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이 더욱 향상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다. 임상에서는 간호사 스스로 긍정적인 전문가적 태도를 갖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여 임상실습을 나온 간호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학교에서도 교육과정을 정비하여 저학년때보다 심화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곧 신규간호사가 될 예비간호사들이 전문적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간호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간호사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생명윤리의식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보면, Cho, 와 Kim[7], Joo와 Shin[8], Ham 등[5]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과 일치된 결과가 나타났다. Lim과 Park[22]의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명윤리의식과 전문직자아개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이미지와 생명윤리의식과의 관계는 찾기 어려워 직접적인 비교는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상으로, 간호사의 전문가적 이미지를 키우기 위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만들어지는 전통적, 사회적, 전망적이미지를 함께 키워나가야 할 것이며, 간호학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을 함께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임상실습의 부정적 측면이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을 낮추므로, 임상실습의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생명윤리의식의 경우, 안락사, 뇌사영역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간호사 스스로 다른 전문의료인처럼 독자적 역할을 수행했을 때,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규명하여 간호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을 고취시키는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학생의 간호사이미지는 5점 만점에 3.83점, 생명윤리의식은 5점 만점에 3.56점, 간호전문직관은 5점만점에 3.76점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이미지와 생명윤리의식(r=.279, p<.001),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r=.568, p<.001), 생명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r=.384, p<.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간호학생들이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를 가지고, 생명윤리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종교가 생명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확인하고, 임상실습의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M. S. Koh, T. S. Kim, S. Mim, J. S. Park, Y. H. Yom, S. H. Yoon, M. A. Lee, M, Chong, E. Y. Hong,

"Introduction to nursing", Soomoonsa, 2011.

[2] E. Y. Kim, E. J. Shin, "A comparative study of professional identity -social workers VS nurs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10(1), pp. 23-49, 2013.

[3] Y. M. Kwon,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3(3), pp. 285-292, 2007.

[4] Y. J. Ko, I.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pp. 62-71, 2011.

[5] Y. S. Ham, H. S. Kim, I. S. Cho, J. Y. Lim,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pp. 536-544, 2011.

[6] D. J. Oh, C. J. Choi, B. E. Kwon, Y. H. Park, "The effects of image of nurses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 pp. 64-72, 2005.

[7] H. H. Cho, N. H. Kim,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pp. 548-557,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4.548

[8] M. K. Joo, G. Y. Shin, "Nursing image and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in colleg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3), pp. 510-521,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3.510

[9] Y. S. Ham, H. S. Kim,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ticipating graduation according to nursing educational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3), pp. 363-373, 2012.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3.363

[10] I. S. Yang,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4(2), pp. 289-306, 1998.

[11] J. K. Kim, H. O. Kim, "A Study on Image of the Nurs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7(1), pp. 97-110, 2001.

[12] H. Y. Kang, M. H. Go, J. J. Yang, S. M. Kim, "Nurses' image perceived by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6), pp. 792-801, 2003.

[13] Y. S. Lee,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2), pp. 249-270, 1990.

[14] G. S. Lee,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non health care profession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02.

[15] C. S. Choi. "Bioethical consciousness of primary school teachers in gangneung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Wonju, 2002.

[16] S. J. Kwon. "A study on the consciou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focused on daegu city and gyeongsang bukdo-,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2003.

[17]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pp. 1091-1100, 2005.

[18] S. S. Han, M. H. Kim, E. K. Yu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pp. 73-79, 2008.

[19] H. S. Jeong, Y. S. Yoo, "Image of nurses a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image determin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4(1), pp. 29-38, 2010.

[20] O. S. Lee, M. O. Gu,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pp. 2749-2759,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749

[21] M. K. Cho,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4), pp. 311-320, 2013.

[22] M. H. Lim, C. S. Park,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7), pp. 4423-4431,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7.4423

[23] M. Y. Moon, M. K. Jeon, A. H. Jaung, "Relationship between nurse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job satisfaction and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14(1), pp. 27-47, 2013.

[24] E. H. Kim, E. J. Lee, "A comparison of first-yea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ethical values and understanding of biomedical ethics",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15(1), pp. 78-95, 2012.

[25] G. S. Jeong, "The effect of gender, ethical values and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n nursing students in on nursing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11), pp. 5672-5681,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1.5672

[26] M. Takase, E. Kershaw, L. Burt, "Nurse-environment misfit and nursing practi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5(6), pp. 819-826, 2001.
DOI: http://dx.doi.org/10.1046/j.1365-2648.2001.01933.x

[27] K. S. Hyun, Y. H. Jeong, "The relationship among clinical competence on diabetic diet education using standardized patients, self-efficacy, communication, learning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2(2), pp. 221-228, 2010.

구 혜 자(Hye-Ja Gu) **[정회원]**

- 2008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2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경성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중년, 여성, 기본간호

이 외 선(Oi-Sun Lee) **[정회원]**

- 2001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감성지능, 성인간호